

|           |  |   |       |  |
|-----------|--|---|-------|--|
| 제 목       | 국 문  | 1991년 전남지역의 쯔쯔가무시병 유행에 관한 연구  |       |  |
|           | 영 문  | The Epidemiologic Pattern of Tsutsugamushi Epidemic in Chonnam Province in 1991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한광일 <sup>1)</sup> , 신준호 <sup>2)</sup> , 문강 <sup>2)</sup> , 최진수 <sup>2)</sup><br>1)전남승주군 보건소, 2)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영 문  | Kwang Il Han , Jun Ho Shin, Gang Moon, Jin-Su Choi<br>Seung Ju Gun Health Center, Dept of PM, 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       |  |
| 분 야       | 역 학  | 발 표 자   | 신 준 호 |  |
| 발표 형식     | 포스터  | 발표 시간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1. 연구 목적

가을철에 유행하는 급성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병은 가을철 농촌지역의 중요한 보건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선 보건기관의 무관심으로 주민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학적인 예방대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쯔쯔가무시병의 발생규모와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 유행의 역학적 특성을 정리, 기술하고 앞으로의 유행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1991년 9월 19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사이에 렙토스피라증, 신증후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기관에 신고된 환자들중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하여 쯔쯔가무시병으로 확인된 148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발병일, 입원일, 통원일, 의뢰기관, 퇴원일, 항체가, 검사결과통보일, 1·2차 검사 양성률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병 양성자중 면접조사가 가능한 71명에 대해서 증상발현전 야외노출 경험여부, 발병시 증상, 주택의 위치, 과거의 비슷한 증상경험여부, 작업조건, 가족이나 동네에서의 유사환자유무 등의 자료를 구하였다.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PC/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Rickettsia tsutsugamushi감염의 혈액학적 판정은 간접면역형광항체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 3. 연구 결과

1) 혈청학적으로 확진된 세 가지 열성질환들(쭈쭈가무시병,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증)중 쭈쭈가무시병이 전체 건수(161명)의 91.9%(148명)을 차지하였다.

2) 성별분포로는 남자가 53명(35.8%) 여자가 95명(64.6%)을 차지하여 여자가 1.8배 더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여자의 경우 50대가 36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의 경우 60대가 22명(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 모두 50대 이후의 연령층이 각각 41명(77.4%), 62명(65.1%)을 차지하여 노령인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3) 시기별로는 148명 전원이 9월과 11월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100명(67.4%)의 환자가 집중되었다.

4) 권역별로는 남해연안지역에서 41.5%의 환자가 보고되어 가장 많았다. 첫 환자 보고일과 중위수 보고일은 내륙에서 가장 빨랐으며, 다음으로 남해연안지역이었고 서해연안지역이 가장 늦었다.

5) 흔한 임상 증상으로는 오한(100%), 고열(100%), 두통(81.7%), 전신피로(64.8%), 발진(70.4%), 근육통(56.3%) 등이 있었다.

### 4. 고찰

본 연구에서 쭈쭈가무시병의 혈청학적인 진단에 의한 발생률은 장우현 등의 보고(대한의학협회지, 1992년)를 상회하였으나, 월별 발생빈도에 의한 성별 발생빈도는 위의 보고와 거의 일치하였다. 연령별 발생빈도는 40대 이상에서 위 보고의 발생률을 상회하였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해안 권역(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이 61명(41.5%), 서해안 권역(목포, 무안, 함평, 영광, 영암, 신안)이 49명(33.3%), 내륙 권역(담양, 곡성, 구례, 화순, 나주군)이 37명(25.2%) 순으로 대부분의 발생보고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기별 분포를 보면 내륙과 남해안 권역은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각각 12명(32.4%), 29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 지역은 11월 1일부터 동월 10일사이에 21명이 발병하여 43%가 집중되었다. 각 지역별로 중위수의 환자가 발병한 시점을 보면 내륙 권역(10월 21일), 남해안 권역(10월 28일), 서해안 권역(10월 30일) 순이었다.

연령별, 지역별,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볼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가을철에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에 발병하여, 주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밭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40대이상의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쭈쭈가무시병의 발견의 절대적인 수치 및 상대적인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쭈쭈가무시병의 예방에 관해서는 면역학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진드기의 유충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약을 바르거나 작업복에 벤젤용액을 뿌리고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 질환에 대한 주민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